

광주수영대회 주경기장 남부대수영장 확정

6개 종목 경기장 결정... 오픈워터 여수 엑스포공원에서 치러
국내 방송사 참여문제 해결... FINA “北 참여 역할할 것”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이 남부대수영장으로 확정됐다. 또 오픈워터 종목도 여수 엑스포공원에서 치러지게 되는 등 6개 세부종목 경기장이 결정되고, 국내 방송사의 광주대회 방송 참여 문제도 해결됐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여 문제가 국제수영연맹과 처음으로 논의됐다.

광주시는 18일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의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결과, 6개 세부종목 경기장이 확정되고 국내 방송사의 방송참여 문제도 풀렸다”고 밝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피터홀 마케팅TV 부장, 와킨푸를 시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FINA 대표단은 2박 3일간의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을 점검을 이날 마무리했다.

FINA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영·다이빙 등 6개 세부종목의 경기장을 확정했다. 주경기장은 애초 광주시의 계획대로 남부대로 확정돼 경영과 다이빙 경기를 하게 됐다. FINA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 임시수조를 설치해 경기를 치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협의 결과, 남부대 국제수영장이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구는 남부대 축구장, 아티스틱수영(싱크로나이즈드수영)은 염주체육관,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운동장에 임시수조를 설치해 경기를 치른다. 오픈워터수영은 수질과 수온 등에 문제가 없다면 기반시설과 경관이 우수한 여수엑스포공원에서 열기로 했다.

또 국내방송사가 FINA가 지정하는 주관방송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경기장면 TV 송출하면 제작 시 영어 자막 표기 및 영어 해설 비용 등도 애초에는 조직위 예산에 반영됐는데 FINA와 협상결과 추가 비용 없이 제작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주관방송사 운영비,

자막 처리 및 영어해설 등 방송권 협상 관련으로 모두 30억원 이상의 대회운영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광주대회 참여와 관련한 FINA와의 논의도 있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북한 참여를 위한 FINA의 역할을 주문하자, FINA 코넬 사무총장은 “FINA 회원국인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100% 북한이 참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가 진행되며 208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재영(맨왼쪽)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강진원(맨오른쪽) 강진군수는 18일 강진군청에서 (주)신안천사김 권동혁 대표, 대원식품(주) 김창현 대표, 승원실업(주) 강재훈 대표와 25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강진에 김 가공공장 등 3개 기업 유치

252억 투자 협약...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와 강진군은 18일 강진군청에서 김 가공공장 건립 등 3개 기업과 총 25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주)신안천사김(대표 권동혁), 대원식품(주)(대표 김창현), 승원실업(주)(대표 강재훈) 등이다.

신안 압해면에 본사를 둔 (주)신안천사김은 전남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김 원료를 확보해 양질의 마른 김을 생산하기 위해 강진 칠량농공단지 2만 2519㎡ 부지에 158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최신 설비를 갖춘 제4공장을 건립한다.

무안 청계농공단지에 본사를 둔 대원식품(주)은 강진 칠량농공단지 8026㎡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대원식품과 신안천사김은 2단계 사업

으로 칠량농공단지에 국내 최초로 톳,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한 곳에서 가공해 해초샐러드, 해초무침 등을 생산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투자협약으로 지난 2011년 5월 준공된 칠량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다.

인천이 본사인 승원실업(주)은 강진산단 7123㎡ 부지에 44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통합금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지난해 KTX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는 등 교통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도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290개 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역대 부농 5000호 육성,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등을 추진하고 전남 관광재 5000만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올 농업생산기반 정비 2876억 투입

규모화·기계화로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총 2876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물을 현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 신속 집행으로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주요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460억원, 노후 제방과 배수갑문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27억원 등이다.

또 주산 단지 및 집단화된 밭의 용수 개발, 농로 개설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253억원, 일반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 필지별 면적을 대형화해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153억원 등 총 17개 사업이다.

전라남도도는 앞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재해 대비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투입으로 고품질과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규모화·기계화 영농을 확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영농기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개호 “도지사 선거 출마위해 2월1일 당직 사퇴”

“3월초 공식 출마 선언할 것
의원직 사퇴 중앙당과 상의”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천)이 다음달 1일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다. 이 의원은 18일 무안군 남약신도사에서 전남도의회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2월1일께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2월13일)에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 준비를 위해 이보다 앞당겨 2월3일을 사퇴 시한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월1일께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을 동시에 내려놓는다. 이 의원은 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민



주당은 현재 국회의원 1명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의원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사퇴 시기는 중앙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유일의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이 지방선거 출마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 남아 당 부활에 노력했다. 출마 여부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당도 성원하고 있다. 지역인 여론 등을 반영해 중앙당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차기 도당위원장과 관련, “단체장·지방의원 공천 권한을 행사하고, 호남 최 최고위원까지 인계받게 돼 ‘슈퍼 도당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위원장이 합의의 추대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경선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정욱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사 SCI 국제학술지 게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박정욱(사진) 연구사의 ‘국내 서남부지방 들쥐, 털진드기, 환자에서 검출한 썩사균 무시균 유전자형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가 열대의학분 학술지 ‘AJTMH’ 2018년 1월 호에 실렸다.

AJTMH는 1921년 설립된 열대의학, 기생충학, 면역학, 감염병, 역학, 생물학 연구를 수록하는 학술잡지로, 특히 진드

기 등 매개체에 의한 발열성질환이 포함된 열대의학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SCI 국제학술지 중 하나다.

이번 연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교수 김동민), 질병관리본부와 협업체 수행한 ‘자연환경계 매개체 및 환자에 대한 썩사균무시균 감시사업’의 결과다.

박 연구원은 자연환경계 매개체인 야생 들쥐와 털진드기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병원에 내·입원하는 환자에서 검출한 썩사균무시균을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 ‘미세먼지 나쁨’ 중국발 황사가 물러온 1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수완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미세먼지 안내등에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글이 표시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